

도, ‘일 혁신프로젝트’ 대장정 마무리

총 278개 과제 발굴... 약 238억 예산 절감 등의 효과 예상
불필요한 업무 정리·혁신 과제 발굴로 도정 효율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일 혁신 프로젝트’ 보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6일 첫 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이전의 벤치마킹 시즌 1, 2에서는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도정에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업무의 필요성과 효과를 냉정히 분석해,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본연의 업무와 새로운 혁신 과제에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도정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 총 278개의 과제가 발굴되

었으며, 이 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약 238억원의 예산 절감과 약 3만58시간(1,252일)의 업무 경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산분야 유사한 보조사업 통합 단일 사업화, △GoGoTalk(정보는 알리Go, 예산은 아끼Go)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발굴됐다.

수산정책과에서 발굴한 ‘수산분야 유사한 보조사업 통합 단일 사업화’는 반복적이고 유사한 수산 지원사업을 하나의 포괄적인 단일사업으로 통합해 예산 관리와 행정 효율을 높였다. 예를 들어, 각각 따로 진행되던 김 중자 지원, 활성 처리제 지원, 물길 포대 지원을 ‘우량 김 생산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 탄력 지원 및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개선으로 신규사업 수요를 기존사업으로 유연하게 대체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분석과에서 발굴한 ‘GoGo Talk(정보는 알리Go, 예산은 아끼Go)’은 도민들에게 미세먼지와 대기질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존 문자 기반의 미세먼지 전파 시스템을 개선한 프로젝트다. 2014년 구축된 이 시스템은 문자(SMS) 자동 전송 방식을 통해 도민들에게 예보와 경보를 제공해 왔으나, 발송 비용 부담과 정보 전달의 제한성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환하면 문자(평균 18원/건) 대비 알림톡(4.4원/건) 전환으로 약 75%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카카오톡 미사용자에게는 기존 문자 발송 방식을 유지해 모든 도민이 혜택을

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혁신은 단순히 업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기존 방식을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인 팀장과 팀원이 함께 꾸준히 논의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것은 옷장 정리와 같다. 오래된 옷을 버려야 새로운 옷을 위한 공간이 생기듯,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도정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 발굴된 과제는 각 실국에서 1차로 총 50개 우수 과제를 추천받아,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를 통해 12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 공식 출범

원광대학교병원,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원광테크노마켓에서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번 출범식은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원광대학교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필수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주목받았다.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원광대학교병원 관계자, 전북자치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사업 소개, 유공자 포상, 지정서 전달 및 출범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익산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고위험 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출범으로 전북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군산의료원(군산권), 남원의료원(남원권), 을해 지정된 원광대학교병원(익산권), 예수병원(정주권), 정읍아산병원(정읍권)까지 총 6개의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를 완성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모든 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된 사례로, 전북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에서 모범적인 사례임을 보여준다.

출범식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 의료과 이정우 과장이 도내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정우 전북특별자치도 보건 의료과장은 “이번 출범식은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진출’

김제시와 장수군이 인구감소 대응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전심사 결과 김제시와 장수군이 최종 13개 지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두 지역이 13개 팀에 선정되면서 최소 장관상 2점을 확보하게 됐다.

김제시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 지자체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시는 올해 산업·일자리 분야의 ‘김제 폐양조장 로컬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유입과 지역활력 제고에 나선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유휴시설로 남은 막걸리 양조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유통하고, 청년 창업이 연계된 로컬벤처 육성을 추진했다.

이로 인한 지역 생활인구 유입과 방송국과 접목한 콘텐츠 차별화가 지역에 활력을 작용하고 있다.

장수군 역시 산업·일자리 분야의 ‘장수 만민의 광장&레드하우스’로 이목을 끌었다. 도시민과 지역민을 연결하는 핫플레이스 ‘만민의 광장&레드하우스’ 조성해 장수 농특산물의 소비·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민관협력형 비즈니스모델로 연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 농특산물 가공 식품과 일자리 창출도 생활인구 유입에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5일 군산 한원컨벤션에서 열린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2024년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염원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도내 300여명 전통시장 상인들 ‘한자리에’

‘2024년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유공자 표창 등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상인연합회는 5일 군산 한원컨벤션에서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도내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및 회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전통시장 발전에 헌신한 상인과 관계자 18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특히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

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상인 공동체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를 안았다.

본 행사에서는 △우수시장 사례 발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대책 △화재공제 지원정책 안내 등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며 상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2036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염원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상인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올림픽 유치를 응원하며 지역사회의 큰 도약을 기대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내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특산물시장 육성 등 총 13개 사업에 약 18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장 현대화와 디지털화 등 변화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중길

폭염·벼멸구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

전북자치도, 14개 시군 3576농가 대상... 66억945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7~8월 폭염으로 인한 인삼 피해와 9월 벼멸구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총 66억9,4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도내 14개 시군 3,576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 면적은 총 4,002.7ha에 달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폭염과 병해충 피해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원인과 피해의 상관관계를 입증해낸 결과다.

전북자치도는 폭염으로 인한 인삼 잎 고사와 벼멸구의 급격한 증식이 이삼 고온에 따른 것임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복구비를 확보했다.

총 복구비 66억9,450만원 중 46억 8,615만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로 마련됐다. 농가 지원에는 재

난지원금을 비롯해 613농가에 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1,193농가에 131억원 규모의 경영 자금 지원 등 간접 지원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고창군이 1,161.7ha의 피해를 입어 약 23억2,75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진안군과 순창군, 김제시 등도 주요 피해 지역으로 나타났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국적 피해가 아닌 특정 지역의 국지적 농업 피해를 재난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였지만, 도민의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극한 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모집

겨울을 보람있게!
(1, 2월 동계과정)

환영

스피치기법, 웃음코칭, 리더십,
긴장해소, 시낭송, 면접스피치

※ 남녀노소 누구나 등록가능, 저렴한 등록금, 매주 1회 야간수업

▷전담교수 주요경력
전주교육대학 겸임교수역임
전북대학교교양과목 담당교수역임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개발원 초빙교수
“행복한스피치” 등 4권저자
스피치칼럼리스트, KBS아침마당 3회 출연
평생교육사, 시낭송가, 작사가, 옹변지도사
스피치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 모집기간 : 11월 20일 ~ 12월 31일까지(남, 녀 누구나 가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금암동)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효자동)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시)

문의 : 010-7304-5665, 231-6669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